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시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9개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국회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과 함께 ‘고용·산업위기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 발의 계획을 발표하고 140만 시민 생존권 보장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군산시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해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9개 지역이 여전히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과 고용 산업 위기지역 특별법의 2월 임시 국회 통과 촉구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은 지역의 위기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140만 위기지역 시민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 발표와 함께 향후 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군산시는 지난해

군산시, 정부·국회에 촉구

5월 위기지역 지정 이후에도 현행법과 제도가 실효성 있는 정부 지원에 제약으로 작용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절감하고 김관영 국회의원과 함께 법 제정 작업에 착수하면서 9개 위기지역과 연대를 통해 최종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9개 지역의 지원 뿐 아니라 향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위기 지역에 지정되는 지역들이 법과 제도의 한계로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접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별법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지역 발생 시 적기에 실효성 있는 대체 산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심사평가와 예비 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규정 적용과 고용 위기지역 최대 2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최대4년까지만 지정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 조항을 경제사정이 호전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질 경우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입찰 참가 자격을 위기지역 내 업체로 제한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할 것과,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의 설치 및 대체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도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9개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은 기반산업의 붕괴로 인해 대량실업 발생과 소상공인 연쇄 도산으로 IMF 시기보다 극심한 상황 속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마련되기 위해 특별법의 조속한 통

과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관영 국회의원은 “오늘은 정부의 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경기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9개 지역 시장 군수들이 140만 시민을 대표해서 모인 자리”라며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특별법을 발의하고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고용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군산시,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청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울산시 동구이며 9개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마련한 ‘고용 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안)’은 국가의 책무 및 경제 위기지역 지원계획 수립을 포함해 12개 조문 부칙 2개로 구성되어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복지수급 혜택 못받던 이들에게도 혜택

군산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최

물고루 누리는 행복도시 군산시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복지수급혜택을 넓혀 나가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2019 군산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로 가족관계 단절 및 기피로 복지수급혜택을 받지 못했던 9세대 13명이 추가로 복지수급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통해 군산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내용 ▲자활복지사업 추진계획 ▲자활기금 운영방안 ▲국민기초수급자 연간조사계획·보장비용 징수 및 제외심의 대상자 등 총 4개 사업 심의가 진행됐다.

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가족관

계 단절 및 기피 등으로 인해 그동안 복지수급 혜택을 받지 못했던 세대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순조롭게 정착되고 시민이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및 상생방안을 마련해달라 당부했다.

김주홍 복지지원과장은 “최근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힘을 합쳐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정신건강복지센터

약사회 자살예방 업무협약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민의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을 위해 30일 익산시약사회와 생명사랑 실천약국 협약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속적인 우울감과 수면장애를 호소하거나 우울, 자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민에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익산지역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8.2명으로 전국 평균인 24.3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노인 자살률이 44%를 차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재훈 기자

익산선관위 조합장선거

맞춤형 홍보사업 전개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맞춤형 홍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익산선관위는 오는 3월 12일까지 지역 670여개 경로당을 방문해 ‘알기쉬운 1분 선거법 강연’을 펼친다.

또 조합장선거일정, 선거관련 금품수수 금지,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등을 안내한다.

선관위는 대한노인회와의 협업을 통해 조합장선거 선거정보, 선거법 위반행위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익산시,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 마련 추진

익산시는 설 명절 민생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설맞이 유통질서 점검과 명절 성수품 등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 등을 통해 명절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전통신장 장비기 행사를 통해 전통신장과 지역 물품 소비촉진 대책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귀성객과 귀경객, 성묘객을 위한 특별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 등 교통 불편 민원에 대한 신속한 접수·처리도 교통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공공보건요원기동, 약국 등을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연휴 기간 의

료공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월 2일부터 재난재해대책반, 생활환경대책반, 교통종합대책반, 도로대책반, 의료진료대책반, 상하수도대책반 등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시민 불편해소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분야별로 마련한 설 명절 종합대책으로 시민들이 명절 연휴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 농촌관광시설 운영자 전문교육 실시

군산시는 농촌관광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최근 농업인회관 강의실에서 서비스·위생·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 정비법 개정으로 화재 대비 안전관리 등 서비스·안전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농어촌 민박과 관광농원 방문객

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서는 친절 서비스 및 안전교육을 진행했고, 가스안전공사 군산지사·한국전기안전공사 군산지사·군산소방서 방호구조과에서는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재경보기, 가스누출 감지기 설치가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사례 중심의 강의로 큰 호응을 얻었다. 김병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농어촌민박의 안전한 시설관리는 물론 고객 만족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민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구제역 차단 청정지역사수 총력전

익산시는 구제역 유입차단을 통한 청정지역사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8일 경기도 안성시 젓소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유입차단을 위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축산농가의 관련단체에 구제역 발생상황을 문자·전화를 통해 전파하고 기존 운영하고 있는 방역대책상황실의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또

구제역 소독약품의 조기공급, 축협 공동방제단을 통해 방역취약농가소독을 지원하는 등 차단방역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또 우제류 농가에 대한 전화예찰과 함께 공수의를 동원해 임상예찰을 강화하고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의 날을 이용해 농가 소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특히 설 명절을 대비해 유동인구가

많은 익산역, 익산IC, 터미널에 귀성객의 축산농가 방문자제를 당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마을방송, SMS 발송 등 홍보를 강화해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에서는 발생지역의 방문을 가급적 금지해야 한다”며 “구제역 예방백신의 적기접종과 축사 내·외부 소독, 쥐잡이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의심축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군산해양경찰서 설 명절을 맞아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귀감이 되고 있다.

군산해경, 명절맞이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귀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귀감이 되고 있다.

30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서로 돕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이웃사랑 행사를 마련 실천했다고 밝혔다.

해경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심시일 반 모은 금액으로 전통신장에서 물건을 구입해 아동복지시설인 ‘삼성애육원’과 ‘금동노인정’에 전달했다.

특히 이날 군산해경 직원들은 서민경제와 전통신장 활성화를 위해

공설시장을 찾아 설 차례상에 올릴 제수용품도 구입했다.

서정원 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자칫 소외되기 쉬운 분들과 함께 훈훈한 설을 만들기 위해 사랑을 모아 전달했다”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사랑을 나눌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동시설과 노인시설을 방문한 군산해경 직원들은 해양경찰에 근무하다 순직한 경찰관 다섯분의 유가족을 찾아가 정성이 담긴 선물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정을 나눴다.

/군산=김정훈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